삼성전자, 기후변화 대응 세계 10위

CDP, 탄소정보 공개평가 500대기업 선정 ... 아시아기업 중 1위 등극

삼성전자가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의 2009 기업평가에서 세계 500대 기업 중 10위에 올랐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CDP는 매년 글로벌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정책을 평가해 파이낸셜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FITSE) 500을 기준으로 순위를 평가하고, 상위 50사로 이루어진 탄소정보공개 리더십지수(CDLI)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9년 CDLI에서 아시아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FITSE 500대 기업 중에서는 세계 10위에 올랐다.

CDLI에 편입된 50대 기업 중 아시아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했고, IT기업으로는 시스코, HP, EMC 4사 선정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기회 요인을 세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배출량에 대한 제3자 검증과 재무 효과 분석, 온실가스 전사 관리체계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녹색경영 선포식을 통해 2013년까지 2008년 대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출 원단위 50% 감축하고 2009년부터 5년간 제품 에너지효율을 40%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8400만톤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2>